



## 10차시 다문화교육과 진로

### 1. 다문화 학생의 진로·진학 현황 및 특성

#### 1) 다문화 학생의 진로 현황

다문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업중단율이 높아 대책이 시급함. 2013년 다문화 초중고생 5만 5780명 중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572명으로 학업 중단율이 1.0%. (초등학생은 0.8%, 중학생 1.2%, 고등학생 2.1%). 같은 기간 전체 학생 학업중단율이 초등생 0.6%, 중학생 0.8%, 고등학생 1.6%인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높음.

#### 2) 다문화 학생 유형별 진로 특성

다문화 학생들은 대체로 진로인식의 부족, 문화결핍 현상에서 오는 진로정보 부족, 학업능력부족으로 인한 낮은 진로 자기 효능감, 진로역할 모델의 부재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1) 국제결혼 가정 다문화 학생<sup>1)</sup>의 진로 특성

어려운 경제적 수준으로 인한 문화결핍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한되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등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

국제 결혼가정 양육환경 특성에 따른 진로정보 부족

주 양육자가 외국인 부모인 경우,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진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함

1) 최인숙(2010)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진로발달이 낮아 남학생에 대한 진로발달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함<sup>2)</sup>

## (2)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의 진로 특성

자녀 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낮은 기대감

중도입국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서툰 한국어와 낮은 한국문화 적응 수준으로 인하여 진학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고 진로에 있어서도 자아실현보다는 가계 지원을 기대함.

언어소통, 사회문화적 소통 등의 어려움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움.

단기 또는 임시 아르바이트와 미숙련 노동시장에 유입.

가족 갈등,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진로 유예

출신국의 성장환경과 다른 낯선 환경, 한국인 양부모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 등 재혼가정이 갖게 되는 갈등까지 더해져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보류하게 만듦. 그래서 진로에 대한 준비보다 유흥이나 비정기적 아르바이트에 할애하게 됨.

비자문제로 인한 진로 유예

한국인 양부모 입양을 통해 귀화가 가능한데 입양절차 문제, 원 국적 포기를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준비와 비용, 한국적응 문제로 인한 귀화 보류 등 체류신분이 불확실함. 진학과 진로에 대한 포부가 있더라도 체류신분이 정해지지 않아 진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을 유예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짐.

사회적 관계망 부족으로 인한 진로 장벽

중도입국학생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도 좁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타인도 한국의 진로 문화와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진로 정보 수집과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거주 지역에 따른 진로지원 차이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은 진로 준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많고, 중도 입국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비교적 쉽게 접하고 활용함. 그러나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학생들은 명확한 진로와 직업에 필요한 진로 준비를 도와주는 체계가 미흡함<sup>3)</sup>

---

2) 조봉환(2012)

## 2.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의 이해

### 1) 다문화 학생 진로 지도 방법

#### (1) 기초기본학습 우선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기초 학습이 필요한 경우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 놀이, 매체, 게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교육을 전개해야 함

#### (2) 글로벌 인재, 이중 언어교육

이중 언어교육은 다문화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를 모두 익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임. 이중 언어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진

로에 큰 도움이 됨.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학교에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으로 이중 언어교실을 운영하며 담임교사와 이중 언어 강사와 co-teaching을 통한 교육, 이중 언어교실에 있는 일반학생의 자연스런 외국어 습득을 계획할 수 있음

### 2) 다문화 학생 유형별 진로지도 방법<sup>4)</sup>

#### (1) 국제결혼 가정 다문화 학생

##### ① 이중 언어 환경을 활용한 진로 안내

한국인/외국인 부모 사이의 양육환경으로 한국어와 외국어(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사용 환경에 노출됨. 이러한 점은 직업의 세계화 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이 될 수 있음. 통역/번역, 관광가이드 등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한 직종을 다양하게 안내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음

##### ② 이중문화 환경 활용을 활용한 진로 안내

한국인/외국인 부모 사이의 양육환경은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의 문화에 동시 노출되어 문화적응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음. 향후 미래직업세계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가 문화이해능력인 만큼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3) 오성배, 서덕희(2012)

4) 김재우(2016).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지도.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자료집. 대구광역시교육청

③ 다문화가정 출신 역할 모델의 활용

다문화가정 출신의 성공모델을 통해 성취동기와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음



**박칼린**

아버지 '박근실'과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어머니 '아이린'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감독·연출.

미국 캘리포니아 칼아츠에 진학해 첼로를 전공했으나 1991년 돌연 국악을 배우러 입국. 서울대학교 국악 대학원에 입학하여 명창 박동진에게 발탁되어 판소리를 사사함.

뮤지컬배우, 연극배우, 보컬 트레이닝 전문가, 음대 교수, 음악 전문 감독, 뮤지컬 연출 등 공연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2)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

①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모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한다는 점은 중도입국학생의 진로에 큰 장점이 되므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해주고, 모국어 능력도 사장되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이중문화 환경을 활용한 진로 선택과 준비

중도입국학생들은 출신국의 문화와 한국문화 모두를 경험하고 습득하기 때문에 문화이해능력이 높으며 이를 활용하여 진로를 모색해 볼 수 있음.

### 타버나 드 포르투갈, 다문화가족 부부가 운영하는 포르투갈 식당



홍대 극동방송 맞은편 골목을 누비다 보면 에메랄드색 외벽이 인상적인 식당이 나온다. 이곳은 지난 2013년 11월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포르투갈 전문 음식점 '타버나 드 포르투갈'이다.

유명 호텔에서 셰프를 지낸 포르투갈인 아고스티노 다실바(46)씨와 해외에서 호텔리어로 일해 온 아내 이희라(46)씨가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씨가 1995년 스위스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할 당시 실습 호텔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포르투갈 음식을 먹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식당을 직접 차렸다고 했다. 국내 1호 포르투갈 식당은 이렇게 탄생했다.

연합뉴스. 2015/07/31 09:23

### ③ 이주민 역할 모델의 활용

자신과 같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적 성공 모델을 통해 성취동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음.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이야기도 공감을 줄 수 있음.



### 이자스민

2012.05 ~ 2016.05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결혼이민여성이자 다문화 국회의원 1호가 된 이자스민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대한민국헌정대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등 수상함

## 수원시! 다문화시대에 맞춰 다문화 가족 출신 공무원 채용



수원시청으로 오시면 다문화 가족 출신의 시청 공무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정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유옥선(41. 여)와 이지혜(29. 여)이 그 주인공데요.

수원시는 지난 2월 말에 공개채용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출신인 유옥선님과 이지혜님을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 출신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지원 업무에 더욱 적합하겠지요?

유옥선님과 이지혜님은 여성정책과에서 다문화 가족의 취·창업지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기도 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와 각종 행정 정보 제공 등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을 했고, 2011년부터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

한 상담과 통·번역 지원 업무를 이미 해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생활상들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겠죠?  
수원시청 공식블로그 2016. 03.30

**베트남 국적이지만 한국사람 다 됐어요.  
재혼한 엄마 따라 입양된 15세 태깃, 코리아 드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달려요.**



울산 대현중학교엔 외국인이 있다. 이 외국인은 축구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베트남말도 잘한다. 아직은 서툴지만 글도 잘 쓴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당태깃(15)군의 이야기다. 몸이 불편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엄마 슬하에 2남 2녀 중 맏이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조금씩 이뤄나가는 태깃군을 만나봤다.

“입국 초기 부적응은 축구와 태권도로 극복”

태깃은 2007년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 카이사 유소년 축구교실을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 대회 주전선수로 참가했다. “축구를 하면서 성격이 많이 차분해졌고, 적응도 수월해졌다”고 아버지 김씨는 말했다.

“훗날 멋진 태권도 선수가 돼 베트남에 한국의 태권도를 제대로 알리자”는 뜻에서 시작한 태권도는 이제 태깃의 장래희망이 됐다. 태권도를 꾸준히 배운 결과 태깃의 실력은 현재 2단이다.

(공감코리아, 2012. 05. 17)

### 3.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의 실제<sup>5)</sup>

(1)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인 학생)을 일반학교에서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1989.11.20)은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음. 이 협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89조의 2에서 다문화학생(외국인)의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므로 의무교육 단계인 초, 중학교에서는 이들 외국국적 학생들의 입학은 거부해서는 안 됨.

(2)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까요?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외국인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원 및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각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정학교를 파악하여 6개월~1년 기간 동안 위탁하여 적응 교육을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전국적으로 초등 67교, 중·고등은 50교, 초·중고 통합학교는 6교(부산 :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 다문화국제학교, 인천 : 인천한누리학교, 광주: 새날학교, 충북 : 청명학생교육원, 제주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등이 있음.

(3) 다문화학생의 기초 학력 능력이 현격히 낮아 학업 지도나 진로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매년 3월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활용 권장. 각 시·도별 소재 대학의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결연하여 1년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450시간을 활동할 수 있음. 참가하는 멘토 대학생은 시간당 도시 12,500원, 농어촌 15,000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므로 학교에서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하지만 멘티 학생 수요자보다 멘토 대학생 공급자의 수가 부족하므로 시도 또는 지원청 담당 장학사에게 해당 학생의 어려움을 자세히 알리면 결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

(4) 다문화학생이 이중 언어를 잘해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를 권장.

다문화학생의 이중 언어 (한국어와 부모님 모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5) 홍승균(2016). 다문화 상담의 실제 I - 다문화학생 진로지도와 교육프로그램 안내. 진로진학상담교사 직무연수 자료집을 참조하여 정리함.

다문화학생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가 시작되었음. 초등부, 중등부로 나누어 참가할 수 있음

(5) 다문화학생의 학업 능력이 매우 높으며 학업 성취 동기 또한 돋보입니다. 어떻게 진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매년 3월말 교육부와 지역별 거점대학 중심으로 「다문화학생 대상 글로벌 브릿지 사업」대상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 이는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 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의 재능 발현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 중심으로 초등 4학년~중2에 이르는 학생 대상으로 신청자들 중 사전 검사를 통해 최종 교육 대상자를 선정함.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상급학교 진학, 과학 영재원 합격, 과학탐구 대회 및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수상 등 각종 우수 사례가 있었으며, '15년 참가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709명에 이름.

(6) 다문화학생의 학업 성취 동기가 낮으며 학업 능력도 실제로 낮은 편입니다. 동기 부여를 위해 지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2016년 울산, 세종, 강원을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의 진로·진학 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현장 체험, 진로 설계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직업교육 지원기관' 운영하고 있음. 대부분의 시도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문화학생 직업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주말 또는 방학 기간 중을 활용하여 다문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신청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시·도 담당자에게 확인.

(7) 다문화학생의 대입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전형은 대학별로 전형명이 다르고 저소득층, 사회 배려자, 다자녀가정자녀 등과 통합해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원자격도 대학별로 차이가 있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일부 학과에서만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 전 꼼꼼히 살펴봐야 함. 경희대학교는 "고른 기회Ⅱ", 광운대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서강대는 "사회통합"이란 전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선발하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참고로 다문화가정 전형을 준비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함.

- ① 지원 자격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결혼 이전에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자
- ② 전형명- 기회균형/사회통합/사회배려/사회기여/다문화/고른 기회

- ③ 적은 모집 인원 선발로 인한 높은 경쟁률 고려
- ④ 전공적합성 관련 서류 준비 정도
- ⑤ 철저한 면접 준비
- ⑥ 다른 전형과 함께 준비(학생부종합전형)